

예술지원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제안: 예술의 현재성을 반영한 오픈트랙 도입을 중심으로

성연주

아르코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, 문화사회학 연구자

2022.4.13.

발표를 시작하며

정책혁신소위 내 과제 설정 및 목표 도출 (2020년 하반기)

예술현장의 주요 변화를 연구 및 분석하여, 아르코의 예술정책을 혁신하기 위한 과제의 하나로 <예술의 현재성>에 관한 연구 제안

<예술의 현재성> 연구 진행 (2021년)

<예술의 현재성> 워킹그룹 구성: 정책혁신소위 성연주, 정윤희, 최도인
<예술의 현재성>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체계 개념화 및 예술인 대상 설문조사 진행
'아르코 대토론회'를 통한 공론화 진행

<예술의 현재성> 기반의 정책 제안 도출 (2022년 상반기)

<예술의 현재성>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현재 예술 작업 방식의 변화를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예술지원사업 패러다임 전환 제안

<예술의 현재성> 연구 간략 소개

<예술의 현재성> 개념화

예술 작업의
현재성

예술인과
사회의
현재성

예술인의
인식에 대한
현재성

한국문화예술
위원회의 현재성

예술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

- 설문조사 결과 보고
- 정리: 티브릿지코퍼레이션

2021 정책혁신소위원회 이슈리포트 <예술의 현재성>

- 설문조사 결과 보고
- 집필: 정책혁신소위원회 성연주,
정윤희, 최도인

[연구결과1] <예술 작업>의 변화

- 예술인의 예술 작업에서 명확한 '작품'을 결과물로 하는 작업 만큼 '리서치'와 '활동(거버넌스, 운영단, 시위 등)'의 작업 비중 또한 높다
- 예술인은 창작자와 기획자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
- 단일 장르 안에서의 작업이 60%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, 다장르 협업의 작업이 40%로 적지 않다
- 예술 작업의 활동 방식 중에서 '유연한 협업'의 비중이 높으며,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

[연구결과2] <지원사업 인식>의 변화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'예술 향유'보다는 '예술인의 창작 지원'을 주요 활동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 지원 체계의 방향은 '장르 중심'과 '시대와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별도의 트랙'을 모두 중시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은 '선별적 방식'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0.7%, '보편적 방식'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.7%로 보편적 방식의 지원의 필요성을 좀 더 높게 느끼고 있다

연구진의 고민
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사업은…
 - 창작과 기획을 넘나드는 다양한 역할과 지위의 예술인을 모두 포함하는가?
 - 장르의 해체와 자유로운 경계의 확장을 수용하고 있는가?
 - 작품 창작 이전의 리서치 단계를 얼마나 지원하는가?
 - 보편적 관점에서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?

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현재

분야	사업명
문학	창작산실(문예지발간지원, 문학비평활동지원, 문학집필공간, 아르코문학창작기금-발간/발표)
시각예술	창작산실(전시사전연구지원 , 우수전시지원, 비평지원, 중견작가, 공간지원)
공연예술	대한민국공연예술제
	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
	창작산실(공연예술비평연구 , 대본공모, 사전제작활동지원 , 올해의신작, 지속연주지원, 창작실험활동지원)
	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
예술인력육성	청년예술가(생애첫지원/국제교류),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
	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,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,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
문화예술향유지원	신나는예술여행
공공예술	아르코 공공예술사업
국제교류	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 , 국제교류지원
예술기술융합	예술과기술융합
기초예술다양성증진	다원예술 활동지원
	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 지원

<오픈 트랙(가칭)> 도입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

- 특징: 현행 장르 중심의 지원 트랙과는 별도로, 개방형 예술지원 트랙 신설
- 지원 내용(안):
 - 결과가 아닌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예술 창·제작을 위한 연구개발(R&D)
 - 예술 활동 방식의 다원적 흐름을 수용하는 리서치 및 작업, Covid19 및 기후위기, 예술과 기술 등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는 작업들에 대한 지원 체계 신설
- 지원 시기(안): 연 1회 공고에 의한 정기 지원 방식을 벗어나, 수시 지원 도입
 -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원 접수
- 지원 규모: 장르 중심 예술지원 예산이 연 약 500억원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최소한 이의 약 30% 규모인 150억원으로 하여, 예술현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
 - 1개 프로젝트 평균 약 1,500만원 내외

<오픈 트랙(가칭)> 도입을 통한 패러다임 전환

- 고민 지점:

- 지원 대상의 확대:

창작자를 포함해 기획자, 큐레이터, 드라마투르그, 기술 스태프, 무대 스태프 등 예술 창작의 과정에 관여하는 넓은 범위의 예술인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

- 선정 기준:

수월성이 기준의 핵심 준거이지만 작업의 미래 가능성과 잠재력을 타진하고 평가해 볼 수 있는 보다 다면화된 평가 체계 도출

-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:

선정자 대상으로 오픈 트랙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 수행 필요

[유사 사례] 영국예술위원회(ACE)

※ 창의적 실천의 개발 (Developing your creative practice)

-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'리서치 중심의 오픈트랙' 사업
- 지원 장르: 음악, 극장, 춤, 시각예술, 문학, 도서관, 융합, 박물관의 지원 범주에서 1개 혹은 그 이상의 범주를 다루고 있는 예술 작업
 - 모든 예술은 다장르 작업임을 전제로 하여, 특정 장르를 지정해서 명시하지 않음
- 지원 대상: [개인 또는 느슨한 콜렉티브, 단체 제외] 창의적 실천가(creative practitioners) - 작가, 번역자, 프로듀서, 출판업자, 편집자, 감독, 디자이너, 공예, 큐레이터, 예술교육자, 커뮤니티 활동가 등
 - 가능한 직업군을 나열해 예시로 제시하였지만 여기 나열된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이라도 모두 지원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영국예술위원회에서 함께 대화와 상담을 시도

[유사 사례] 영국예술위원회(ACE)

- 지원 분야:
 - 미래 작업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
 - 새로운 작업 아이디어 구상
 - 새로운 협업자와의 실험
 - 멘토를 만나거나 새로운 실험을 만나기 위한 해외 리서치 여행
 - 전문적 예술가로 성장하기 위한 활동
 - 연구 개발
- 지원 시기: 1년에 4차례 (1번 선정된 후에도 다다음 모집에서부터 재신청 가능)
- 지원 규모: 2,000~10,000파운드 (약 350만원-1,500만원)

[유사 사례] 영국예술위원회(ACE)

- 지원서 질문:

- 이 작업이 당신의 예술인으로서 생애에서 왜 이 시기에 진행되어야 하며, 이 작업이 향후 미래에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?

- 요구 사항:

- 직접 관객을 만나거나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는 public engagement 활동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함

질문을 던지며

- 현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리서치 중심의 예술지원사업은 예술인의 필요와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?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중 장르에 기반한 작품 창작 중심의 사업과 오픈트랙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?
- 만약 이런 오픈트랙을 신설한다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계획, 평가, 환류의 방식 및 도구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?